

종계 강제환우, 병아리 값에 따라 결정된다

□ 정리/김동진 기자

지금까지 종계업은 실질적인 생산성 저하 측면은 관심밖에 두고 병아리 가격 등 외부적인 여건에 이끌려 강제환우라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택해 가며 차후 불황의 불씨를 남겨 놓는 우매함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산란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병아리 육추, 육성이 증추전문 농장에서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과정상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국 종계장 21곳을 대상으로 알아본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육용종

계의 국내 강제환우 경향과 증추입식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1. 강제환우

닭검정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종계의 유효기간은 산란계의 경우 부화일로 부터 20개월, 육용계는 16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유효기간을 넘은 종계는 환우를 시켜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70년 산란계를 중심으로 강제환우가 활발히 실시되었을 당시에는 마렉질병의 만연으로 육성기간, 생존율이 낮았으므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되어 오다 이

후 노계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한동안 강제환우의 이점이 감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 이후 사료가격 인상 등 원가 상승으로 강제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산란계의 경우 난가가 너무 낮고 환우 후 계란 가격이 상승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강제환우를 시키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나 종계의 경우는 병아리 가격과 깊은 관계가 있어 각 농장마다 환우를 시키고 있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종계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강제환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종계장 자체는 물론

실용계 농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즉 종계를 강제환우하면 난계대성 질병의 보균이 높아지며 전염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무증상 감염을 일으켜 보균화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따라서 농장내 새로운 육성계나 신계들에게 질병노출 기회가 제공되는데 환우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중량이 높은 종란으로 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걸보기에는 건강하게 보이나 활동성이 적고 세균의 오염도가 높아서 실용계 능력저하의 원인요소가 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가금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 등이 등장하면서 환우 실시후 발병이 증가되었다는 간접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 강제환우 실시경향

강제환우 실시 여부(유효기간 이내 실시도 포함)에 대한 질문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농장이 65%, 1회 실시한다는 농장이 3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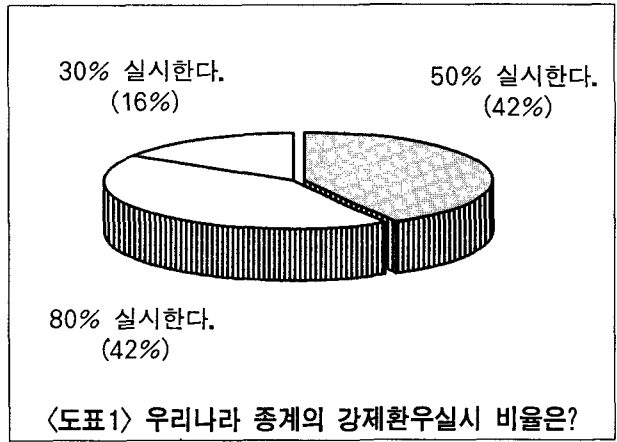
강제환우를 하지 않는다는 농장 대부분은 환우의 경험이 있었던 농장으로 경제성 면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 설

시를 기피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1회정도 실시하는

농장들은 과거 한정적인 수입 종계로 병아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우를 실시하던 것과는 달리 성적이 나빠 어쩔 수 없이 환우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병아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문 경우지만 환우를 2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된 한 종계장의 경우 법정 유효기간이 끝난 노계를 다시 구입하여 환우를 여러 번 시킨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커다란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효기간 이후 종계의 강제환우를 실시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서 의외 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80%실시하는 것으로 보는 농가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50%실시한다(42%), 30% 실시한다(16%) 순으로 나와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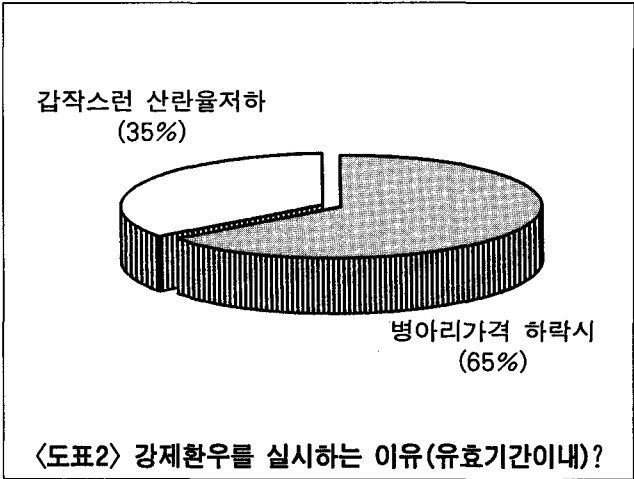


문에 응답한 농장들중 65%가 강제환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하면서도 우리나라 전체농장들은 현재 60% 이상 강제환우를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 상당수의 농장들이 강제환우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으로만 떠도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3. 강제환우 실시이유

유효기간 이내에 강제환우를 실시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병아리 가격 하락 시가 65%로 주를 이루었으며 갑작스런 산란율 저하(35%)가 다음을 차지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병아리 가격이 620원으로 높게 유지된 4월의 경우 심지어 30% 계군까지 생산에 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년의 경우 5월 북병아리 임에도 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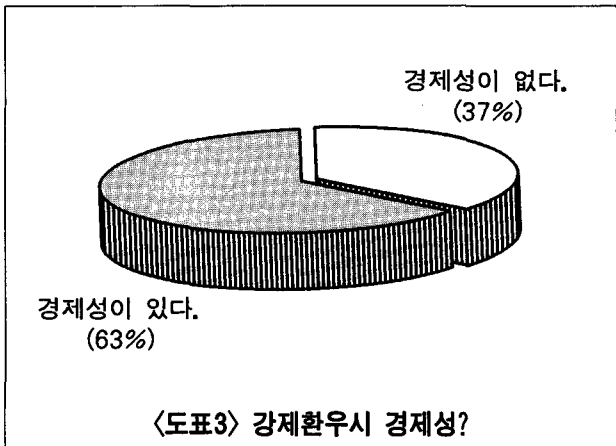
이하의 병아리 가격이 유지되다 예상 밖으로 가격이 떨어진 6월에는 일제히 환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계열화 농장이나 규모가 큰 농장들일수록 생산성 측면을 중시하여 부득이한 경우(갑작스런 생산성 저하)에만 환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과거에는 노계를 팔아 병아리를 사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는 이미 옛말

하될 때, 노계수요가 격감할 때, 브로일러 가격이 폭락했을 때 등 노계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환우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강제환우 경제성

주위에서 강제환우가 수익성이 좋았다(산란율, 수정율, 및 부화율 향상 등)는 막연한 이야기 또는 신계육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감각적 판단으로



이 되었고 생산자들도 노계가 격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노계가 일시에 많이

환우를 결정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유효기간 이후 종계의 강제환우를 실시한다

고 볼 때의 경제성을 묻는 질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농장이 37%,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농장이 63%로 나타났는데 경제성이 있다고 본 농장들은 환우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농장들도 있지만 환우시기를 조절, 환우가 끝나는 시기에 병아리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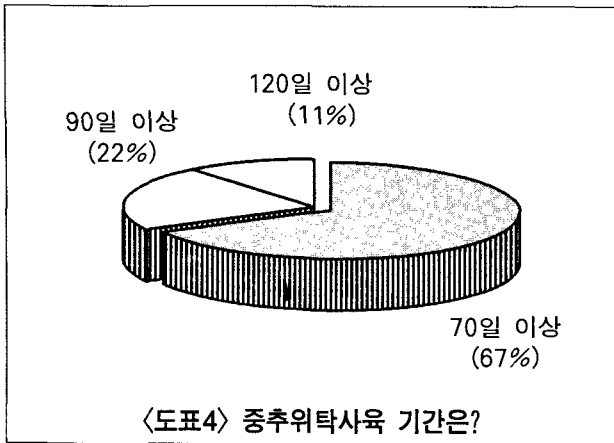
외국의 경우에는 강제환우가 난각질 향상 기법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 외국의 경우 환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중추입식

육용종계의 산란성적은 병아리 육추, 육성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 사항이다.

채란계 농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중추를 주문 사육내지 위탁 사육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여 왔으나 사육 일령을 속여 파는 경우, 품종을 속여 파는 경우, 2종 이상을 혼합하여 동일 품종으로 속여 파는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중계에서도 중추전문 농장



이 생겨나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농장의 종계입식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병아리를 구입하여 자체 육성시킨다는 곳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추위탁 사육은 4%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직접 육성시킨 중추가 중추전문 농장에서 구입한 중추보다 능력이 훨씬 유리하며, 한번 중추를 잘못 구입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금 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 등 질병확산의 우려가 커지면서 가능하면 스스로 육성한 계군을 고집하는 농장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중추육성을 하는 농장들도 대부분 믿을 수 있는 농장을 선택하여 계약주문을 하고 있으며 중추농장에

과거처럼 무계획적으로 종계를 입식 시키는 경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 유통업자를 통해 중추를 구입하는 농가도 있으나 이들은 대개 종계에 경험이 없다든지 육성할 장소가 없는 종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만약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익만 챙기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할 소지가 높다.

중추구입시 위탁사육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70일이 67%, 90일이 22%, 120일 이상이 11%를 차지해 대부분 농장이 70일을 고수하고 있으나 종계의 상태와 백신접종 관계에 따라 늦추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완벽한 백신접종이 끝나는 18주(126일)까지 사육하는 것이 종계의 생산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병아리를 직접 구입하여 농장에 공급하고 중추를 받는 곳도 있어

6. 결론

종계업은 양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종란수입 등 어려운 현실과 맞물려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업계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합리적인 병아리 생산조절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종계업계가 해결할 문제이며 부화율 저하는 물론 시설비, 인건비, 부대비용(운송비 등)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움이 있는 만큼 생산성이 낮은 계군을 강제 환우 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경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 중추농장이 생겨나면서 중추위탁 사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지만 우량한 병아리 생산을 위한 중추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추판매시 반드시 계통보증서 발급, 기간중에 실시한 병류별 예방접종 실시 여부, 향후 사양관리 프로그램, 혈청검사 결과 통보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서로 믿는 가운데 중추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